

최근 지역경제 상황

(2014년 9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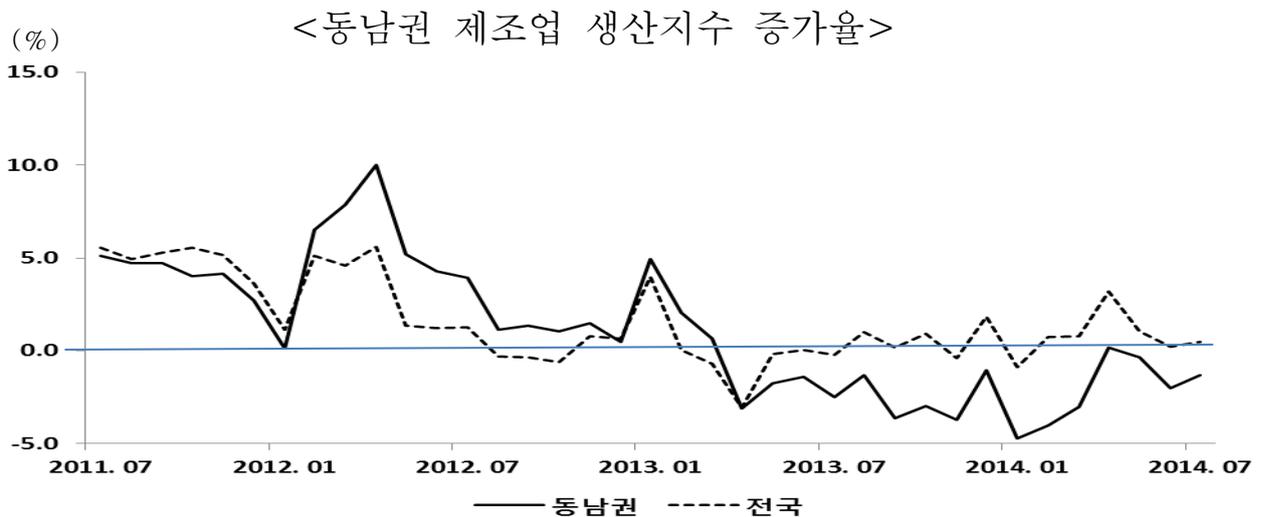
【요약】

- 동남권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제조업 생산 및 소비도 부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
 - 다만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
- 유럽 및 중국 경기 둔화, 엔화약세 등 대외적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

1. 생산 : 감소세 지속

□ 최근 3개월(2014.5월~2014.7월) 동남권 제조업 생산은 감소를 보여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

- 전국은 자동차(6.4%), 금속(5.2%), 철강(3.5%), 석유(2.6%) 등을 중심으로 생산 증가
- 동남권은 금속(6.5%), 석유(6.0%), 자동차(3.3%) 등이 증가했으나 조선(-10.4%), 기계(-2.6%), 철강(-0.9%), 화학(-0.5%) 등의 감소로 마이너스 성장
 - 자동차는 신차 효과 및 한-EU 관세 추가인하로 인한 수출 호조로 증가
 - 기계, 철강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화학은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감소로 전환
 - 조선은 2012년 수주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 폭은 축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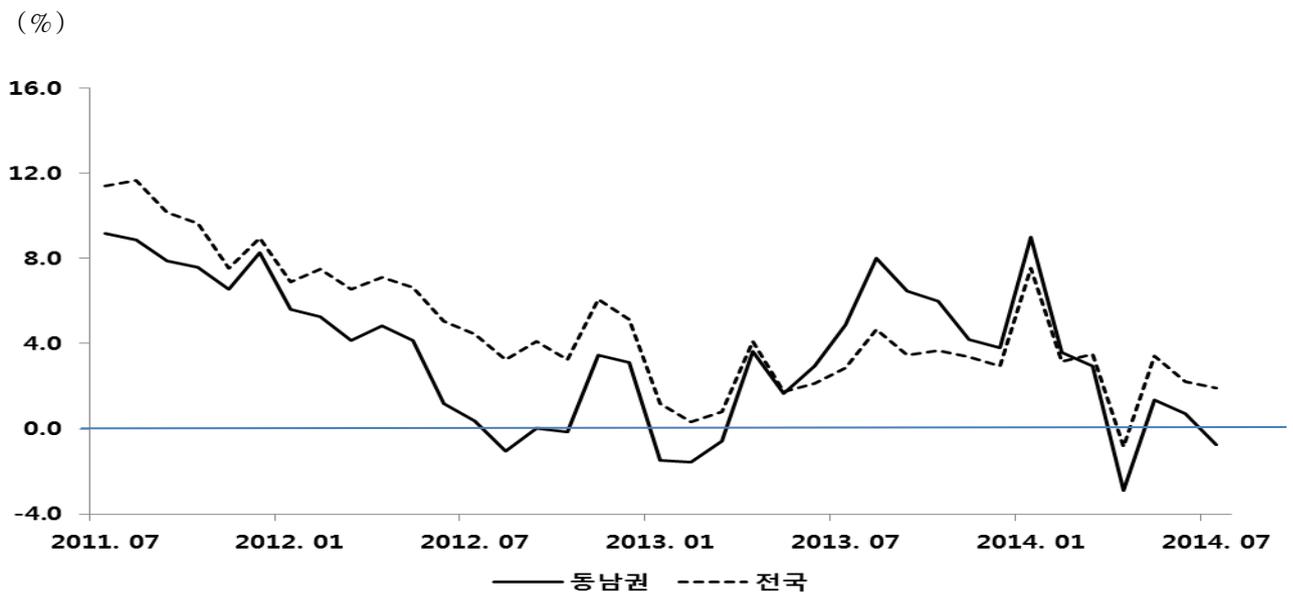
주: 전년동기대비 증가율, 3개월 이동평균

2. 소비 : 감소세 전환

□ 동남권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감소

- 전국 및 동남권의 대형마트 판매는 증가했으나 백화점 판매는 전국(-0.5%) 및 동남권(-2.5%) 모두 감소
- 상품별로는 오락·취미·경기용품,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동남권 소비가 부진한 모습
- 지역별로는 부산(0.1%)은 증가했으나 울산(-3.4%) 및 경남(-0.9%)이 감소

<동남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증가율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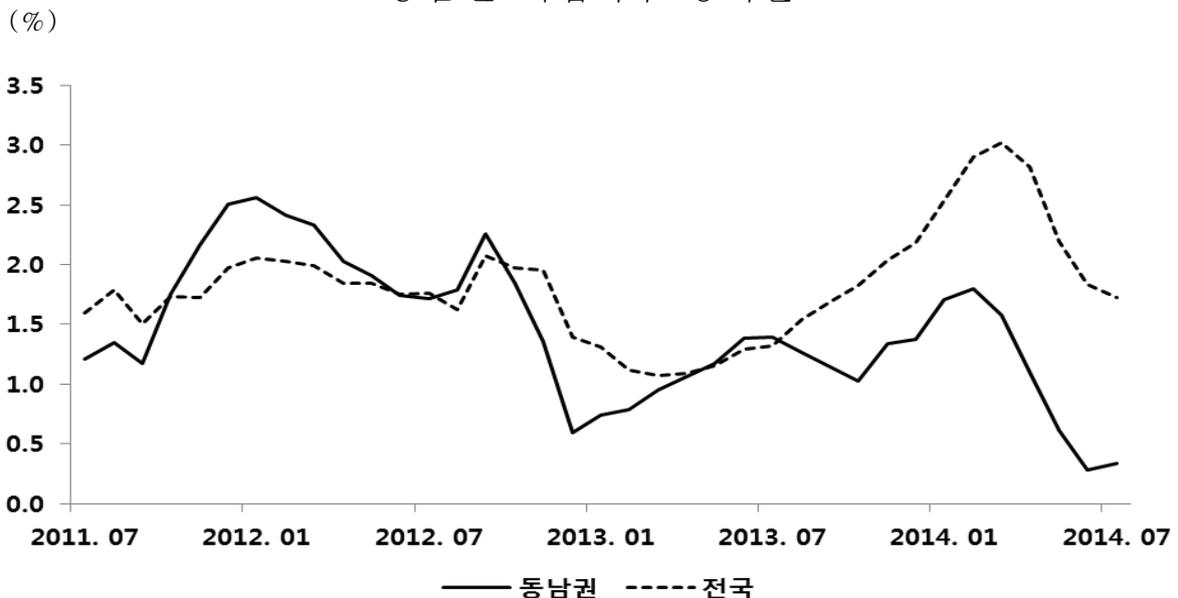
주: 전년동기대비 증가율, 3개월 이동평균

3. 고용 : 부진한 흐름

□ 동남권 취업자수는 제조업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감소로 부진한 흐름

- 전국 제조업(4.0%) 취업자수 증가세는 확대 되었으나 도소매·숙박·음식점업(3.6%)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1.8%) 등은 증가 폭 둔화
- 동남권 제조업(1.3%)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1.2%)은 취업자수가 증가하였으나 건설업(-3.3%), 도소매·숙박·음식점업(-2.2%) 등은 감소세 지속
- 지역별로는 부산(1.8%)은 증가했으나 울산(-1.2%), 경남(-0.8%)이 감소

<동남권 취업자수 증가율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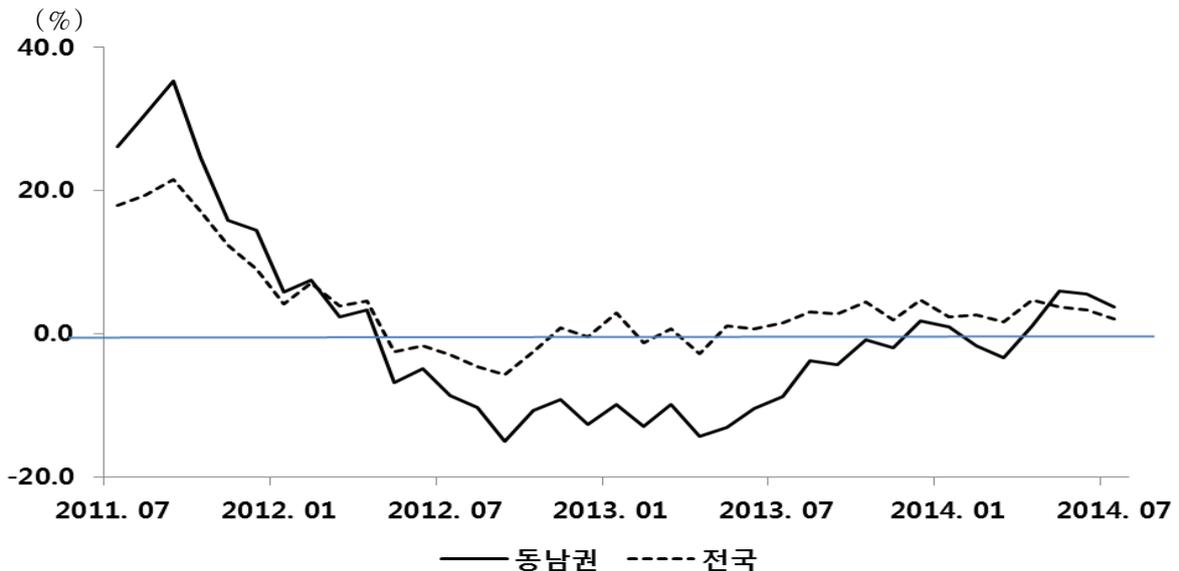


주: 전년동기대비 증가율, 3개월 이동평균

4. 수출 : 증가세 둔화

- 동남권은 전국보다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가 폭은 둔화
 - 전국은 무선통신기기(8.7%), 자동차부품(8.2%), 반도체(3.6%), 자동차(3.6%) 석유(2.5%) 등을 중심으로 증가
 - 동남권은 건설광산기계(-17.8%), 선박(-14.0%) 등이 부진했으나 석유제품(23.5%), 자동차(12.2%), 자동차부품(9.8%) 등을 중심으로 플러스 성장
 - 지역별로는 부산(7.6%), 울산(4.5%), 경남(2.6%) 모두 증가세를 시현

<동남권 수출액 증가율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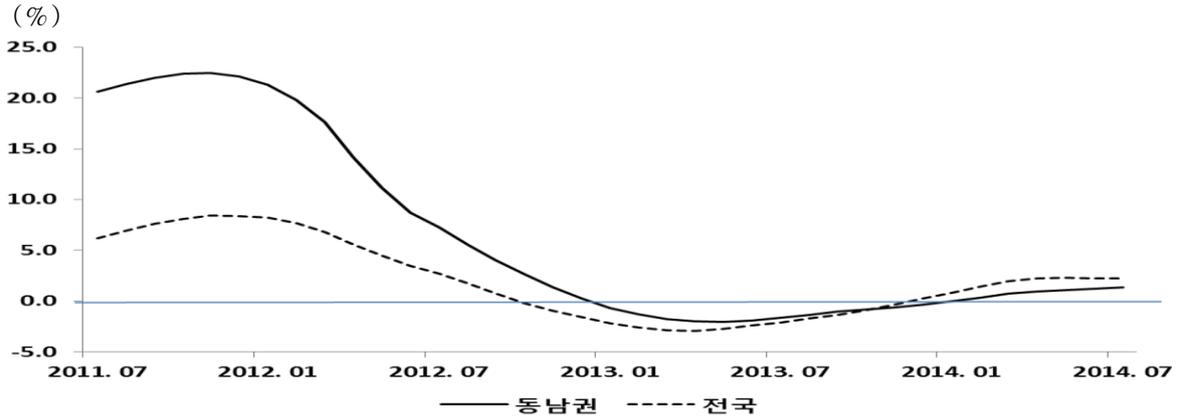


주: 전년동기대비 증가율, 3개월 이동평균

5. 부동산 : 상승세 지속

□ 동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상승세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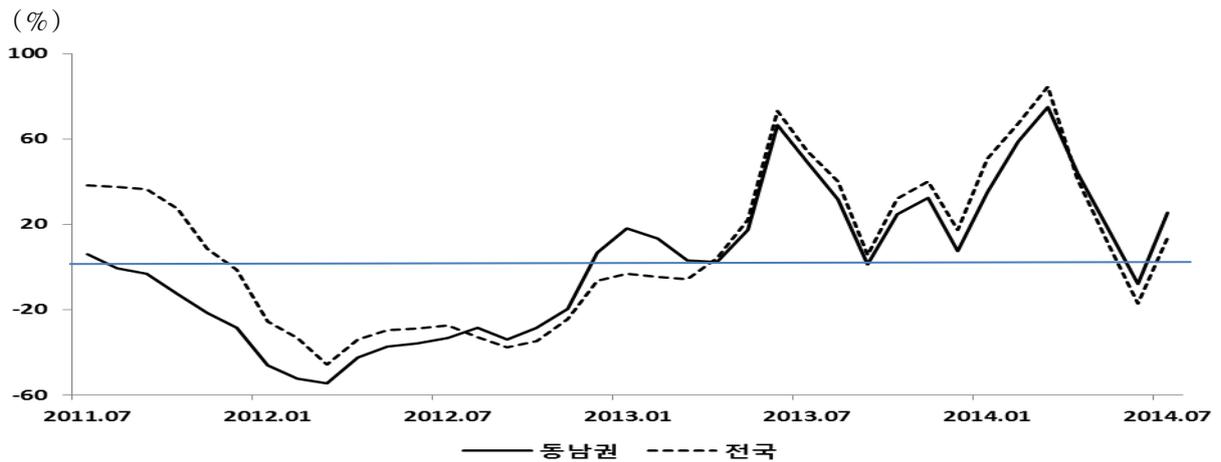
<동남권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증가율>



주: 전년동기대비 증가율, 3개월 이동평균

□ 동남권 아파트매매거래량은 정부의 DTI·LTV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발표 등에 힘입어 증가

<동남권 아파트매매거래량 증가율>



주: 전년동기대비 증가율, 3개월 이동평균